

Date: 20 Elul 5786 (September 2, 2026)

Torah Portion: Vayelech

Topic: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

인간의 근시안적 태도에 대한 '죽음의 천사'가 말한 비판적인 기록은 우리의 육신은 필멸의 존재이며, 사람의 영이 육신의 옷을 입을 동안에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아벨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실로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조하르 (Zohar) (제 3 권, 126a)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마치 이곳에 영원히 머물 것처럼 착각하곤 한다고 개탄합니다. 삶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천진한 시간을 지난 모든 사람들이 의식 가운데 알면서도, 사람들은 마치 현재의 상황과 소유물, 계획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기 쉽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인간의 본성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에, 창조주께서는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상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성과 수고하며 쌓아 올리는 업적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육체적으로 약하고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질병, 배고픔, 피로, 부상,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수면의 필요성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들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주관할 수 없음을 끊임없이 일깨워줍니다. 배고픔은 의존적인 존재임을, 피로감은 근육적 힘의 한계를, 질병은 육체의 연약함을, 그리고 수면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정기적으로 이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일깨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노아 시대에 인류를 심판하실 때 여호와께서는 "רוּחִי (루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창. 6:3). 라시(Rashi)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으며 쇠락해가는 육신에 불과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여호와 엘로힘께 반역할 수 있었다면, 만약 불이나 그보다 더 강한 물질로 만들어졌다면 얼마나 더 반역적인 존재가 되었겠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연약함은 겸손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비극적인 점은, 인간이 매일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스스로를 창조주 여호와 엘로힘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로 착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슈미타(안식년)'와 '요벨(희년)'이라는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מִצְוָה (미쯔보트; 계명들) 통해 한 층 더 깊은 일깨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와 토라의 명령에 따라 7 년마다 농사일을 멈추고 밭을 탕감해야 했습니다. 7 년의 주기가 일곱 번(7x7=49 년) 지난 후(50 년째) 에는 יוֹבֵל (요벨; 희년)이 돌아왔는데, 이때 조상의 땅은 정해진 상속 규정에 따라 원래 주인에게 반환되었고 이스라엘 종이었던 자들은 이 희년에 해방되었습니다. 이러한 계명들은 이 땅에서 취한 모든 물질이 '영구적인 소유권'이라는 착각에 직접적으로 도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수십 년간 밭을 일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것은 내 소유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슈미타는 그가 자신의 노동에서 잠시 물러나게 했고, 요벨은 그의 소유권조차 여호와께서 정하신 테두리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습니다. 토라는 그 원리를 레위기 25 장 23 절을 통하여 명확하게 설명합니다—"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는 소유권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토라는 인간의 소유권이 궁극적으로는 '청지기 직분'임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땅, 소유물, 재물, 힘, 기회, 심지어 우리의 생애의 모든 날들까지도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질문은 단순히 "내 소유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맡기신 것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희년(요벨)을 향해 헛수를 셈하여야 되는 계명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교훈은 50 년에 한 번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날짜를 세는 행위 자체가 온 이스라엘에게 현재의 소유물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밭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종들은 풀려나며, 영원히 소유할 것 같던 경제적 질서도 결국에 끝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희년"과 '죽음'(유한성)에 대한 영원한 빛과 생명의 가르침인 토라 말씀을 통한 기억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음 같은 교훈을 줍니다. 즉, 두 가지 모두 결국에는 "놓아줌(해방)"이 있을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희년은 땅 주인에게 "당신의 소유는 일시적인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이 삶에 대한 당신의 소유권은 일시적인 것입니다"라고 말해 줍니다. 이 둘은 모두 우리가 현재 쥐고 있는 모든 물질들 곧 그림자 있는 것들이 영원히 우리 손에 남아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깨뜨립니다.

이 교훈은 볼로진의 랍비 하임(R' Chaim of Volozhin)에 관한 일화에서 흥미로이 드러납니다. 그가 이끄셨던 공동체에 속한 두 사람이 어느 땅 한 지분을 두고 격렬한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각자 그 땅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랍비 하임은 그들의 엇갈린 주장과 분노 섞인 비난을 들은 뒤, 판결을 내리기 전에 분쟁 중인 땅을 직접 보아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과 당사자들은 그와 함께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랍비 하임은 뜻밖에도 몸을 숙여 땅바닥에 귀를 대었습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이미 각 당사자의 말은 다 들었으니, 이제는 땅 자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땅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들이 물었습니다. 랍비 하임이 대답했습니다. "땅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요. 하지만 둘 다 틀렸소이다. 언젠가 그들은 모두 죽어 흙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결국에 그들 각각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나 또한 그들 중 누구의 소유도 아니지요. 오히려 그들 모두가 내게 속하게 될 거예요.'"

이 유머에는 심오한 무샤르 (도덕•윤리)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이 땅에서 각 이름으로 명기된 모든 소유주를 품에 안게 될 땅을 잇은 채, 누가 그 땅의 주인인지를 따지는 데만 근시적으로 몰두하곤 합니다. 한 세대가 밭을 소유하고, 다음 세대가 이를 물려받으며, 또 다른 세대가 이를 사들이지만, 그들 중의 누구 하나도 영원히 그것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던진 비판에도 바로 이러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내일을 계획하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토라(Torah) 또한 책임감, 준비, 파종, 건축,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적절한 대비를 가르칩니다. 내일을 미리 대비 하는 것에 있어서 "위험성"은 그 계획이 '오만함'으로 변질될 때, 즉 내일이 마치 "이미 우리의 것"인 양 생각하고 말할 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빛 가운데 걸으면서 여호와 지혜의 영을 통하여 늘 동행하려는 것입니다. 공간인 육신 안에서 운행하는 사람의 시간적인 날들이 한정되어 있기에 오늘 하루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소유물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그것을 얼마나 자기의 이기와 이기만을 위하여 꼭 움켜쥐고 있느냐보다 그 물질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만물이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것이기에, 현실에서 갖고 있는 소유물들은 단순한 특권이 아니고, 아주 신중한 책임이 됩니다.

죽음의 천사, 쉘미타 (안식년), 요벨 (희년), 그리고 하임 (Chaim) 랍비의 발 밑에 있는 땅의 묘사등 이 모두는 똑같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영원히 여호와의 소유인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거주자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건물을 짓고, 씨를 뿌리고, 소유하고, 저축하며 내일을 계획할 수 있지만, 그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토라는 선포합니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머무는 나그네이자 거류민일 뿐이다." 핵심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결국 내놓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그렇게 될 상황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것을 돌려주어야 할 "여호와의 때"가 개별적으로, 아니면 범 우주적으로 한 세대에 오기 전까지 우리가 여호와께서 맡겨 주신 그 생애의 모든 날들과 모든 물리적인 것들을 갖고, 무엇을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샬롬

"그런즉 너희는 먼저 [여호와 엘로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6:33

"여호와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시. 119:151

"여호와의 토라(법도)는 진리로소이다" -시.119:142

"여호와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며, 당신의 의로운 규례들은 모두 영원합니다." -시.119:160